

동대문시장에서 성공신화를 배운다

김양희 외의 《재래시장에서 패션 네트워크로》를 읽고

이동현 | 가톨릭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삼성경제연구소/A5신/328면/12,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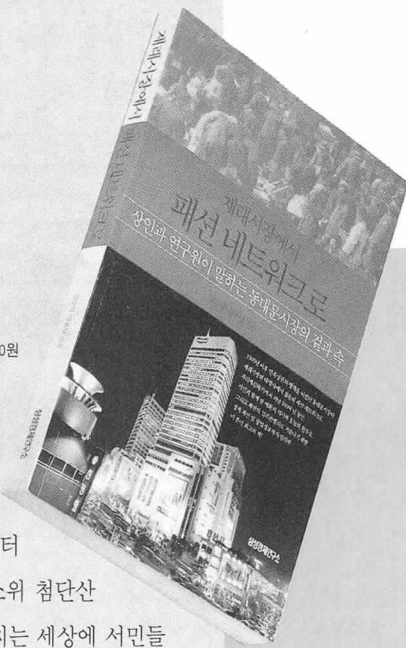
우리가 즐겨 다니는 동대문시장에 관한 책이 나왔다. 디지털, 인터넷, 생명공학, 벤처 등 소위 첨단산업에 관한 이야기가 판치는 세상에 서민들의 삶과 애환이 배어 있는 재래시장에 대한 연구는 웬지 어색하다는 느낌마저 들 정도다. 그러나 동대문시장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 패션에 관련된 모든 제품을 망라한 세계 최대의 패션시장으로 성장했다.

패션산업의 집적지 동대문시장

이제 동대문시장은 약 32개 상가에 2만7천7백여 점포가 모여 있어 일단 규모 면에서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초대형 시장으로 변모했다. 이곳의 하루 유동인구는 약 30만명, 고용인구는 약 10만명 정도로 추정되며, 수치 면에서도 연간 매출액 10조원에 수출액만 1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이쯤되면 동대문시장은 과거 우리가 알고 있는 단순 재래시장에서 탈피해 어느새 패션산업의 집적지로 팔목할 만큼 성장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책이 우리의 관심을 끄는 이유는 동대문시장의 성공이 우리에게 주는 몇가지 중요한 시사점 때문이다. 우선 재래시장에서 패션네트워크로 변신한 동대문시장의 성공은 사양산업과 첨단산업에 대한 우리의 고정 관념을 깨고 있다. 흔히 재래시장은 사양산업이라고 인식하기 쉽다. 대형 백화점과 할인점, 인터넷 쇼핑 등 새로운 유통기관이 등장하면서 재래시장의 입지가 점점 좁아지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신발이나 의류산업을 사양산업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의 나이키나 이탈리아의 베네통을



사양기업이라고 부르지는 않는다. 오히려 이들 기업은 인체공학과 혁신적인 디자인, 정보기술과 정교한 물류 시스템을 활용해서 신발과 의류산업을 선도하는 첨단기업들이다. 마찬가지로 고객중심의 상품기획, 발빠른 신제품 출시 등을 통해 재래시장을 변신시킨 동대문시장도 사양산업이 아니라 첨단산업인 셈이다. 흔히 우리는 반도체, 디지털, 인터넷, 생명공학 등만 첨단산업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 아이디어나 기술을 활용해 혁신을 이룩하면 사양산업도 얼마든지 첨단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다는 증거를 동대문시장이 직접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동대문시장이 여타 재래시장이나 일반 의류업체와 달리 혁신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저자가 주장하는 동대문시장의 핵심 성공요인 가운데 하나는 기획, 생산, 판매간에 견고한 네트워크가 형성돼 있다는 점이다. 동대문은 시장이라는 특성상 생산자와 상인간의 오랜 거래 관계가 유지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커뮤니케이션과 지식 공유가 가능한 협력체를 구축했다. 특히 동대문시장은 패션과 관련된 모든 기능들이 동대문이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모여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의 역할은 미미해

일반 기업형 의류업체의 경우는 기획, 생산, 판매 기능이 지역적으로 분산돼 있어 상호간의 커뮤니케이션이 동대문시장보다 용이하지 않다. 즉, 제품의 기획의도를 하청 생산자에게 전달하는 것도 수월하지 않으며 지역적으로 분산된 판매망에서 입수한 시장정보를 본사에서 분석, 제품 기획에 반영하는 일도 신속하지 못하다. 동대문시장은 이 모든 일들이 시장 내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핵심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특정 산업은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적으로 집중화되는 경향이 있다. 예컨대 영화산업과 첨단기술 산업은 미국 할리우드와 실리콘 벨리에 모여 있고, 고급 시계산업과 국제금융업은 스위스 제네바와 취리히에 집중돼 있다. 이런 산업의 지역집중 현상은 물류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정보와 지식의 확산, 생산과 구매 단계에서 규모의 경제효과, 관련산업의 발달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를 끌어내기 때문에 최근 기업 전략은 물론 정부정책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연구되고 있는 개념이다.

한가지 아이러니컬한 것은 동대문시장이 재래시장에서 패션 네트워크로 변신하는 데 정부의 역할은 미미했다는 점이다. 상인들과 기업들이 자생적으로 상권을 형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했던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동대문시장은 일반 기업은 물론 21세기 새로운 산업 정책 모델을 입안하는 정부 관료들에게도 훌륭한 학습 장소가 될 것이다.●